

순천시, 스카이큐브 조정안에 허동지동

대한상사중재원에 2월 말까지 입장 연기 요청
에코트랜스 “더 이상 시간연장 의미없다” 난색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중인 스카이큐브사업(경전철) 운영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이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조정에 나선 가운데 중재원으로부터 지난 23일까지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순천시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반면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판정 연기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에코트랜스측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투자 협약 불이행에 따른 순천시에 귀책 사항이 있어 더 이상 경전철은 운행할 수 없다며 경전철 무상기부채담을 받아줄 것을 순천시에 요구함과 동시에 30년간 운영을 협약한 만큼 사업을 철저히 종료할 경우 철거비용 순천시가 200억을 요구하자 시를 상대로 협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1,367억원을 보상하라며 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분쟁 조정에 나선 중재원이 요청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판결에 앞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꼭 필요한 경전철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정안을 도출한 것은 사실상 ㈜순천에코트랜스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재원이 권고하고 있는 조정안을 살펴보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당초 협약안과 도중에 작성된 협의안을 절충하고 양보해 ㈜순천에코트랜스가 계속 스카이큐브를 운행하거나’, ‘순천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 일부를 순천시가 보상하고 시가 스카

이큐브를 기부채납 받아 경전철사업을 직영하라’는 등의 2개의 조정안을 제시, 지난 13일 순천시에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순천시가 제시된 중재안을 거부하거나 순천시의 의견을 ㈜순천에코트랜스가 거부할 경우 중재원은 오는 3월 13일 자체 판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의결이나 관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시일이 촉박해 중재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중재원에 2월 말까지 권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천에코트랜스측은 2017년부터 시작된 일로 모기업의 일정도 있어 더 미룰 사항이 아니며 또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중재원에 중재

요청한 의도에도 어긋난다며 재산처분 권한을 가진 의회에 긴급 임시회 개원을 요청하거나 개원 예정인 2월 7일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결정을 내린다면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 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순천시의원들은 집행부의 확고한 결정 없이 의회에서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시민단체들도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식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전달한 상태이다.

양측이 중재원의 권고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그동안 심리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하게 되며 중재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어 순천시가 해지 시 손실금 1,367억 중 일부를 변상할 것 인지 철거비용을 보상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광양주조공사가 전남도 명예홍보대사인 일본 약선요리 연구가 신카이 미야코 씨를 초빙해 막걸리의 본격적인 수출길 모색에 나섰다. /광양시 제공

광양주조 막걸리 수출길 찾는다 일본 약선요리 전문가 초빙... ‘맛·향’ 우수 칭찬

㈜광양주조공사가 전남도 명예홍보대사인 일본 약선요리 연구가 신카이 미야코 씨를 초빙하며 막걸리의 본격적인 수출길 모색에 나섰다.

광양주조는 최근 신카이 미야코 씨를 초대에 광양주조 현황을 설명하고 최신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막걸리 제조 과정을 소개했다.

미야코 씨는 ‘광양 생막걸리’, ‘매실 막걸리’, ‘유자 막걸리’ 등 광양주조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막걸리를 맛보며 탁월한 맛과 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야코 씨는 “광양주조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막걸리는 일본 사람들도 충분히 선호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면서 “달달한 유자향이 가미된 막걸리는 젊은 층,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살균수가 아닌 햅쌀과 토종 누룩 등 좋은 재료를 100% 사용, 자연 숙성해 유산균이 살아있는 전통 생막걸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눈길을 끈다”면서 “일본 사람들도 이 맛을 꼭 볼 수 있도록 공장견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야코 씨는 일본 전통주 애호가·바이어 20여명과 함께 오는 5월 재방문해 광양주조 공장을 견학하기로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 ‘관광도시’ 도약 행정력 집중

관광객 550만명·경제유발 1,485억 목표
권역별 기반사업 집중투자·핵심자원 연계

광양시가 올 한해 관광도시 도약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거점별 관광개발 전략 등 민선7기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시민이 누리는 일상관광,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관광객 550만명 유치, 경제유발 1,485억원 달성’을 목표를 삼았다.

이를 위해 권역별 관광기반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핵심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은 금호대교, 갈호대교, 이순신대교 접속부, 이순신대교 마동IC 접속구 등 5개 교량과 해안선을 연결하는 조망사업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삼화섬 내에 아영 조망용 전망대 설치도 병행한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착공한 망덕포구-배알도 간 현수교 식 해상보도교는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이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상으로 연결한다.

경험과 감성이 중시되는 관광 흐름에 맞춰 광양관광의 가치와 특성을 함의한



광양시내에서 바라본 이순신대교 야경. /광양시 제공

슬로건을 토대로 통합 BI(Brend Identity)를 개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착수한다.

2월까지 공모 선정된 슬로건의 디자인까지 완료하고 광양관광 BI 선포식을 시민과 함께 열 예정이다.

또한 BI는 각종 홍보물과 동영상 등 광고물에 활용한다.

‘광양에와야하는 10가지 이유’를 2월까지 테마별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비교 우위자원인 미식관광 활성화, 이벤트 상설화로 광양관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이가 신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경상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와 더불어 유력한 여행사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마케팅도 주력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을 잇다’ 기획전

3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

고흥군이 고흥 분청사기의 전통과 현재, 미래를 잇기 위해 ‘2020년 고흥 분청사기 레지던시 작가 기획전-분청을 잇다’ 기획전시를 오는 3월 29일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2019년 고흥 분청사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하나로 김철화, 허성보 작가 2명이 고흥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분청사기 창조공방에서 작업한 성과를 96점이 전시된다.

15세기 화려한 도자문화를 꽃피웠던 고흥 온대리 분청사기의 특징인 자유분방함, 활달함, 아름다움이 현대 작가들에 의



해 재현되고 해석된 고흥 분청사기의 예술성과 창의의 예술성과 창의의 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분청사기 레지던시 작가 기획전을 통해 분청사기의 예술성과 창의성, 아름다움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고흥 분청사기의 맛을 계승·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내외 작가들에 의해 고흥 분청사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종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곡성군은 최근 농번기철을 앞두고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트랙터, 경운기 등 안전사용법 및 사고예방법을 농민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농업기계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조원자 소장은 “집합교육,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임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허정 장안순 화백, 순천대 발전기금 기탁

순천대학교는 허정 장안순 화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써 달라며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고영진 총장과 장안순 화백, 정동보 학생처장, 강두중 비서실장을 비롯한 발전지원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안순 화백은 “지역에서 성장한 작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보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보성군은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는 김철우 군수, 김몽현 조성면장, 군의회 김경열 부의장, 정광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면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재래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찾고·보고·알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로 홍보물과 복지제도 안내문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홍보했다.

김 군수는 “보성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